

올해로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추구기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진심으로 통일과 평화의 강령을 중심으로 남북의 관계와 정세, 현재 북한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분단을 넘어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북한 지하교회의 실체

평양 호텔에 룸 방장고 안에는 신터 우유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생수가 여러 병 들어 있다. 한 선교사가 평양호텔 식당에서 경험한 일이다. 서빙하던 청년이 신터 물을 마시며 건강하고 건강하다고 하기에 생물은 조물주에게 달렸다고 매우했다. "일어요, 하나님께 감사지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지하교회 교인이었다. 또 6.25때 어머니를 남측 두고 간신히 월남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제미교포 자체가 북한을 방문했다. 어머니 묘에서痛哭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부르는데, 누군가 따라 부르기에 돌아보니 17살 된 어린 조키였다. 할머니께 300곡 정도를 배웠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 부르더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선교사가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가서 70대 후반 정도의 어느 지하교회 장로님을 만났다. 보트를 타고 함께 가지며 탈북을 권유했는데, 거절하 기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240명을 돌 볼 사람이 없다고 허더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많은 청 년을 양육하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매일 셋째 주일은 금식기도일로 정하고 이환리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금식기도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선교사는 지하교회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기도제복을 물었더니 "남조선에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이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도 위협하라는 이유로 북한선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북한 할머니의 기도를 생각하자. "평일까지 복을 전하라."에서 "평일은 지리적 개념도 있지만, 고난의 개념도 있다. 즉, 환란과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을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는 남로 심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처참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1970년대 말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세 노인이 처형되었다. 북한에는 위장감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장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분 하에 갑자기 묘치는 것이다. 신흥군의 한 농가를 덮쳤는데, 노인 세 명이 상경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북한에는 위장감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장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분 하에 갑자기 묘치는 것이다. 신흥군의 한 농가를 덮쳤는데, 노인 세 명이 상경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행했는데, 두개골이 터지고 뇌수가 사방으로 터지면서 시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등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북한에는 다섯 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기독교인은 약 7만 명 정도며 추측된다. 6.25 전쟁 이후 2000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하교회의 공공적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빨리 오는 것이다. 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총발론적 소망을 갖겠는가?

중국 쑤저에서 양육 받고 있는 함홍 출신의 탈북 여성을 만났는데, 이 자매는 아버지가 먼저 못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 중국에 왔다고 한다. 재배의 이웃동네에서는 죽은 딸의 시체를 동물로 착각한 어머니가 인육을 먹고 기관원에 잡혀갔다는 말도 했다.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 받지 않고 신앙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북한선교의 당면과제가야 핵심이다.

왜 그리고 또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는가?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수령과 노동당과 인민대중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인민이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인민대중은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수령은 오류도, 흠도 없는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재앙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광박해졌고 완악해졌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13회나 나온다.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의 마음도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있다. 지난 1월 8일은 김정일의 생일이었다. 이날 그는 측근들에게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선물로 주면서 히틀러가 패망한 독일을 어떻게 일으켜서 제3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북한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잔인한 전범을 멘토로 삼고 있는 김정일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상상이 된다. 기도가 절실하다.

또 하나의 물줄기는 북한의 대남도발이다. 오늘날까지 약 20회 정도의 도발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도발, 위기는 두 번이었다. 첫 번째는 1976년 판문점에 있었던 도끼만행사에서 도끼로 미군 장교 두 명을 찍어 죽였고, 이에 미국이 보복하라고 일어났다. 두 번째는 1994년 5월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이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북한 핵 개발민지가 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영변을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작전계획을 살펴 보면 일단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면 북한은 남침을 감행할 것인데, 휴전선의 4만 8천 명의 포를 서울로 향해 쏘고 탱크로 밀고 올 것이다. 미군 3만 명과 한국군 60만 병력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미국 본토에서 40만의 병력을 투입,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51, F11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띄워서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타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를 자처하며 평양으로 들어갔다. 미국 정부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다. 그럼에도 클린턴 행정

이다. 수령의 명령은 노동당을 통해 인민에게 전달되며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령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오류성이라고 하는데, 즉 수령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삼자가 결합된 것을 삼자일체라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같다. 또한 주체사상에는 마치 기독교의 삼계법처럼 10대 원칙도 있다. 북한에서 권력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으로는 3대가 이어지는데, 이를 삼대 권력세습이라고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가문, 배두혈통을 강조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상속권과 유사하다. KAL기 폭파면 김현희가 조사를 받을 때, 광음을 전한 후 다시 찾아 가서 성경을 읽어본 소감을 물었더니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꾸면 주체사상 체계와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성경에서는 사랑, 소망, 믿음, 강조하지만, 주체사상은 혁명, 응오,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장곡을 찍어서 집힌 김현희에게 당시 심정을 묻자, 평소 그토록 충성하고 받들었던 수령 김정일은 후호도 안 들고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현재 김현희 씨는 독일 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남북 관계의 커다란 두 물줄기

올해로 분단 67년이 되었다. 남북 관계를 돌이켜 보면 커다란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 대화이다. 6.25가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94년 5월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이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북한 핵 개발민지가 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영변을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작전계획을 살펴 보면 일단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면 북한은 남침을 감행할 것인데, 휴전선의 4만 8천 명의 포를 서울로 향해 쏘고 탱크로 밀고 올 것이다. 미군 3만 명과 한국군 60만 병력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미국 본토에서 40만의 병력을 투입,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51, F11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띄워서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타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를 자처하며 평양으로 들어갔다. 미국 정부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다. 그럼에도 클린턴 행정